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AI는 제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던졌을 질문을 만듭니다.
26년차 강사가 쌓은 지시문 91개로.

인터넷 활용 강의 20년(2000~2021) · 취업 강의 10년. 금융권·외국계 기업
은행 23년(1993~2015) 출신 · **예순이 넘었고, 코딩은 한 줄도 모릅니다**

26 년 강의

31 개 기관 교재

91 개 지시문

24 시간 가동

① 어떤 상황이었나

26년 전 그 질문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인터넷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관리 · 보고서 쓰기 · 재테크. **20년간** 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2026년

"AI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새 도구 앞에서 어디서 막히는지를 20년간 봤습니다.

제 쪽의 문제

면접 강의는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BEI 면접 질문은 **자소서마다 다릅니다.** 전형은 **기관마다, 기수마다** 바뀝니다. 발표되면 교재를 매번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0대이고 코딩을 모릅니다

지금도 **'코'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만 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면 **수강생 수가 제 시간에 묶입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에는 수강생이 **혼자 연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② 어떻게 했나

AI에게 '일'이 아니라 '내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자소서가 들어온다	질문이 생성된다	교재가 갱신된다	앱에 올라간다	사람이 검수한다
수강생이 자소서와 사전 과제 (독수리 5형제)를 메일로 보낸다	기관별 BEI 면접 질문을 자동으로 만든다	전형이 발표되면 **지난 기수와 비교해** 교재·커리큘럼을 올린다	Claude Code 가 직접 올린다	에이전트가 24시간 돌고, 나는 검수만 한다

선을 그은 자리

나만의 AI 에이전트

AI가 자소서를 대신 써 주는 것은 이미 누구나 합니다. 제가 만든 것은 **제 26년 강의 노하우를 주입해 나처럼 질문을 뽑고 나처럼 멘트를 주는** 에이전트입니다.

앱에서

수강생이 혼자 연습합니다

Claude Code 로 직접 만든 앱입니다. 지금 수강생들에게 **시범 서비스 중**이고 곧 일반 배포 예정입니다.

만들고 있는 것

제 아바타가 강의하고 AI가 면접관이 됩니다

제가 했던 수업을 AI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아바타 강의 영상**으로. AI가 질문하면 수강생이 **글·음성으로 답하고**, 의견과 추천 예시 답변을 받습니다.

핵심

AI가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나처럼 하게 만드는 것

보통은

결과물을 시킨다

"면접 질문 만들어 줘."
→ 나오는 건 **AI의 질문**입니다. 매번 다르고,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내 수업 방식을 가르쳤다

어떤 자소서에서 **무엇을 보고**, **왜 그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 나오는 건 **제가 던졌을 질문**입니다.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방식을 AI가 그대로 이어받고, **더 좋은 점은 제안받고, 제가 수긍하면 채택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휴먼 AGI** 라고 부릅니다. 범용 AI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방식에 충실한 AI**라는 뜻입니다.

선 하나

검수는 넘기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24시간 돌지만 **검수 없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의 합격이 걸린 물건입니다. **AI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 하나가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쌓이게 하는 법

"새로 만들어"가 아니라 "지난 것과 비교해서 고쳐"

새로 만들라고 하면 AI는 **매번 새로 지어냅니다.** 그러면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게 만드는 것이 생성시키는 것보다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③ 무엇이 바뀌었나

만드는 일에서 검수하는 일로

무엇을	전	지금
자소서별 면접 질문	수강생마다 손으로	**넣으면 자동 생성**
전형 발표 후 교재	매번 처음부터	**지난 기수와 비교해 갱신**
앱에 올리기		**AI가 직접**
제 역할	전부 만들기	**검수**
가동 시간	제가 일하는 시간	**24시간**

26년치 강의 자료와 23년 은행 경험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수강생이 앱으로 혼자 연습합니다.

쌓여 있는 것 : AI가 읽을 수 있게 정리된 자산	
기관별 면접 교재 폴더	**31곳**
기관 공통 교재	**162건**
강의 자료	**2,800+**
AI에게 일을 시키는 지시문	**91개**
전체 자료	**6,700+**

※ PC 한 대 기준. 따로 쓰는 PC까지 합치면 **세 배가 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지시문 91개**입니다. 저는 AI에게 **매번 새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지시문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씁니다. **그 91개가 제 수업 방식이 AI에게 옮겨 간 흔적이라고 봅니다.**

④ 나만의 방식

시중 AI 강의와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중 강의

사용법 위주

강사가 **대부분 IT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쉬워요"**가 됩니다.

제 강의

막히는 자리 위주

저는 IT 출신이 아니고 **코딩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시만으로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기록해 **초보자가 따라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IT를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이건 쉬워요"가 되고, 모르는 사람이 먼저 겪고 가르치면 "여기서 막힙니다"가 됩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뒤쪽입니다.

1. AI에게 **결과물을 시키지 말고, 내 방식을 먼저 가르친다**. 무엇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2. **내 기존 자료를 먼저 읽힌다.** 새로 짓게 하면 내 말투가 사라진다
3. **쌓이게 만든다.** "새로 만들어"가 아니라 **"지난 것과 비교해서 고쳐"**
4. **검수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 특히 사람의 합격·평가가 걸린 자료
5. **막힌 자리를 그때그때 적어 둔다.** 그게 다음 강의의 목차가 된다
6. **검수도 혼자 눈으로만 하지 않는다.** 다른 AI에게 검수 기준을 정해 주고 검수시킨 뒤, 그 결과를 만든 AI에게 인지시켜 **검사기를 재강화**한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

AI를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AI를 쓰면 이깁니다

20년 간호사

간호사의 판단 방식

30년 공방 장인

그 사람만의 순서

학원 선생님

그 선생님만의 설명 방식

공통점

챗GPT에 물어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를 AI에게 가르쳐 자기 분신을 만드는 법. 그게 다음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AI를 통해 더 확대하고, 보존하고,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휴먼 AGI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